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5.3.19.(수) 금융위 직후

(주)우리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변경인가

- ▶ (주)우리투자증권은 투자매매업 변경인가(본인가)를 통해
종합증권사로서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병환)는 '25.3.19(수) 제5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우리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변경인가를 심의·의결하였다.

(주)우리투자증권은 작년 7월 한국포스증권(주)이 우리종합금융(주)과 합병하고,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상호를 현재의 (주)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하여 출범하였다.

당시 (주)우리투자증권은 합병 및 자회사 편입과 별개로 투자중개업(증권) 추가등록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함께 받았으며,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에 대하여는 변경 예비인가를 받은 상황이었다.

오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의 후속으로 본인가를 받음으로써, (주)우리투자증권은 종합증권사 영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우리투자증권이 작년 합병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부가조건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 ❶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 및 증권업 확대 등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금융당국에 보고
- ❷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남명호 (02-2100-2653)
<협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책임자	국 장	임권순 (02-3145-7580)
		담당자	팀 장	최지혜 (02-3145-7570)

